

“소프트웨어도 빌려쓴다” 코로나로 날개다는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시장 규모 1조 돌파 전망
비대면 등으로 클라우드 전환 가속
초개인화 추세... 맞춤형 추천 가능
지능형 알고리즘, 수요·공급 조정



e커머스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빅인'을 적용한 모습. /빅인사이트

채 장기화 가능성까지 있어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SI(시스템통합) 구축 방식보다는 SaaS 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반 e커머스 마케팅 솔루션 기업 빅인사이트는 SI가 아닌 SaaS 방식으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고객사에 월정액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50만원부터 200만원 이상까지 플랜으로 제공해 이미 패션, 뷰티, 가구 브랜드 등 700여개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인사이트 관계자는 “쇼핑몰에서 고객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AI의 머신러닝 기술로 상품을 추천하는 데, 주



마인즈랩의 마음 회의록.



/마인즈랩

로 자사몰이나 전문몰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초개인화 추세에 맞게 고객에게 좀 더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존 전통적인 형태인 SI 대신 SaaS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AI 기반 SaaS 플랫폼 제공업체인 오나인(o9)솔루션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우혁 신임 대표를 한국 지사장에 임명한 후 국내 SaaS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SaaS 기반 SCM 솔루션으로 시장 수요의 감지 및 예측, 수요 공급 조정, P&L(손익) 관리, 플래닝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특히 AI 모델을 사용해 예측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 AI 플랫폼은 기업 고객이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계획 언어’를 설정해 수집하고 규칙 및 알고리즘을 만들고 분석해 유용한 지식 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회사의 플랫폼은 피렐리·나비코·실리콘랩스 등 소매·소비재·의류·가전·반도체·산업 제조·석유 및 가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확보해 통합 계획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AI 플랫폼 제공업체인 마인즈랩은 지난 3월 SaaS 기반 회의록 자동정리 AI 서비스인 ‘마음회의록’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마음회의록은 AI 플랫폼인 마음 AI에 접속해 회의정보 인력과 회의록 파일 업로드만 해도 텍스트화된 회의록 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 또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해 녹음버튼 한번만 누르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녹음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문서화해 공유할 수 있고, 회의록은 클라우드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열람 가능하다. 마음회의록은 AI 플랫폼 이용료인 월정액 9만9000원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마인즈랩은 또 이달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이노그리드와 AI 클라우드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MOU)를 맺고 AI 클라우드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AI 전문기업인 솔트룩스는 기존에는 AI 고객센터 구축, 챗봇 고객응대 등을 할 수 있는 AI 플랫폼 공급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 데이터과학 SaaS 서비스와 대규모 데이터 수집·인공지능 등 클라우드에 기반한 구동형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채윤정 사진기자 echo@metroseoul.co.kr

코트라, 실무능력 갖춘 수출인재 양성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작년 특성화고서 76곳에 취업 성과
유관 기업과 협력... 유망 中企 발굴

KOTRA(코트라)가 수출인재를 길러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코트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실무능력을 갖춘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20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년차인 이번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을 상대로 수출 실무·FTA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연수를 시행한다. 실무 역량을 갖춘 수출인재를 양성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5개 특성화고에서 102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중 84명이 76개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해 취업 성과에 힘입어 대상학교를 5개에서 7개로 늘렸다. 서



코트라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실무능력을 갖춘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20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실무인력 양성사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교육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여자상업고, 천안여자상업고, 부산세무고 등 학교가 새로 선발됐다.

이번 사업은 ▲(5~10월) 기업 모집, FTA 실무교육 ▲(6~12월) 기업-학생 면접, 채용협약 체결 ▲(최종) 현장실습, 정식채용 등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트라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다. 채용박

람회와 전국 순회 설명회도 열어 다양한 구인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FTA 실무교육은 65시간 이론수업, 국내·외 연수, 원산지실무사·국제무역사 등 자격증 취득 등으로 구성된다. 실무교육이 끝나면 면접 후 기업-학생 간 잠정 고용협약을 체결한다. 약 3개월 기업 현장실습을 마치고 졸업과 함께 정식 취업하게 된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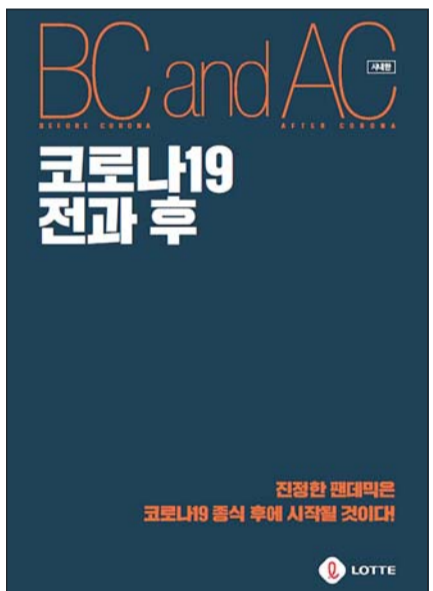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가 더 중요” 롯데, 지침서 배포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비즈니스별 선제 대응 모범

롯데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롯데는 10일 전 그룹사 대표이사 및 기획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과 후(BC and AC)’라는 제목의 사내용 도서를 배포했다.

롯데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도서 발행을 기획하게 됐다. 롯데인재개발원과 롯데지주는 지난 3월부터 정책학, 사회학, 경영학,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층 인터뷰를 가지는 한편, 국내외 관련 도서 및 논문 등 문헌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도서로 발행하여, 4월 말 전 계열사에 배포를 완료했다.

해당 도서는 과거 정치, 사회, 문화를 리셋하는 계기가 되었던 팬데믹, 20세기의 경제위기 등을 오늘날의 코로나19 사태와 비교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모습을 다양하게 짚어내고 있다. 정치적 영역, 국제관계와 글로벌화, 경제적 영역, 기술의 발전, 사회 문화와 가치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제시한다. 롯데는 이 도서가 그룹 내 임원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몸 담고 있는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그 영향력과 대책을 모색하는데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사 임원들이



코로나 19 전과 후 표지 /롯데그룹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한편,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월 소집한 비상경영회의에서도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신 회장은 “지금도 위기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비즈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멈춰 선 오늘날의 세계 경제도 문제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불어 닥칠 전방위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롯데인재개발원 전영민 원장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구조적 변화를 이루고,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서민금융진흥원, 신입 공채... 어학요건 폐지

2017년부터 블라인드 방식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8일까지 올해 신규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채용인원은 총 39명이다. 채용 분야는 신입(33명)의 경우 ▲일반직 5급(종합직 20명·전산 3명) ▲상담직 5급(3명) ▲업무지원직 6급(6명) ▲자활지원직 6급(직업상담 1명)을 뽑는다. 경

력(6명)은 ▲일반직 4급(사업계획 및 예산관리 1명·금융상품개발 2명·전산개발 2명) ▲업무지원직 4급(안전관리 및 총무분야 1명)을 채용한다.

앞서 서민원은 전 채용과정에 학력, 나이, 성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의 열린 채용을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진정성 있는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

복지원 제도 이용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는 전향도 실시하고 있다. 전 채용과정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우대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고 서민원은 설명했다.

이번 채용전형에서는 지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학자격 요건을 폐지했다. AI역량검사(면접)를 실시해 지원자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